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宣教70、80周年標語を決定

一九七八年을 하나님의 남
리와 祝福으로 在同胞을 위
한 福音宣敎가 시작되지 70
周年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바로 70年前 韓民族이 日
帝의 侵略으로 歷史的 危機
에 直面했을 때 우리 先人
들은 民族의 災難을 생략하
여 日本에 導入한 西歐의 開
化思想과 學問을 터득하기 위
해 日本에 건너온 것이었으
나 그리스도는 苦難難는 民
族을 찾아 그들의 빛이 되
고 眞實이가 되어 이 땅을
찾아온 韓民族을 인도하시
작하였습니다.

一九〇八年 東京韓國YM
C A를 中心으로 발전한 그리
스도의 불빛은 그후 이民族
의 受難期(一九〇一年—一九
一一年)에 걸쳐 지금껏 이
間 逆境을 헤치고 福音의 불
빛을 들고 主님 뒤를 따라
이民族을 이끌기 위해 全部를
바친 先人들의 信仰의 遺産
을 繼承하여 더 힘차게 나
아가며 歷史속에 役事하여
日韓民族의 참 希望과 救援
이 되시는 하나님께 크신榮
光을 돌리고서 이해를 뜻짓
게 맞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宣敎80周年을 向한이
時점에서 過去를 反省하며 또
한 評價하면서 새세대를 맞
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一九六八年, 宣敎60
周年을 맞이했을때 70周年을
向하여 「그리스도를 따라서
상으로」라는 標語 밑에서 宣
敎10周年計劃을 세웠고 그간
우리의 宣敎基本政策을 成案
하고 ①敎會에 革新, ②同胞
社會에 革新을, ③世界에 希
望을 이라는 三大目標을 向
하여 努力했으나 우리의 不
忠誠과 怠慢과 學問不足으로
成果있게 責任을 감당치 못
했음을 痛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힘이 不足
하고 不忠誠한 것이었으나,
主께 自己已半 무리를 사랑
하사 다음의 事實들을 이루
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①開拓伝道로 다섯 敎會가

②信徒數가 점차적으로 增加하였음.
 ③在日同胞의 삶의 밑바닥에 찾아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姿勢를 갖고 同胞의 權益獲得에 同參 KCC, R A I K를 設立活動하고 있음.
 ④教育面에 힘을 넣기 위하여 三教會가 教育團을 開設하였음.
 ⑤牧師, 長老및 教會指導者가 增加함.
 ⑥ 점차로 世代交替가 이루어지며 二世信徒의 活躍이 顯著해짐.
 ⑦自立教會가 增加되고 總會自立을 위해 積極推進中에 있음.
 ⑧母國教會와의 相互유대를 強化하여 왔으며 아울러 世

標語「우리의 希望이신 예수 그리스도」
 目標①새세대의 教會를 형성하자.
 ②재일동포의 새로운 신심을 지향하자.
 ③세계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一세 世代的 教會로서 形成해 나가기위하여 온갖 物件을 克服하며 一세의 信仰의 遺産을 올바르게 繼承한다.
 2在日同胞의 보다 充實한 새로운 삶과 忠實한 信仰生活的 터전을 마련한다.
 3苦難속에 있는 同胞과함께 主를 따라 前進하는 教會로서 歷史속에서 宣敎的 使命에 總力을 다하며 自立

이상과 같이 우리의趣旨을 밝히며 앞으로 宣敎80周年 나카서 百周年을 지향하면서 過去 그 모든 경위에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지키시고

70周年記念事業委組織

一、宣敎70周年記念事業委員會
 長 李仁夏

一、実行委員會
 李仁夏(委員長) 田永福(書)
 麦仁道(會計) 金元治 洪永其
 金京秋 韓在秀 俞錫濬 崔京植 金主日(準) 吳榮一(準)

作業・各委員會의 計畫案을 總括推進 事務局掌理 招待事業

一、根本对策委員會
 李仁夏(委員長) 俞錫濬(書)

一、祝賀行事委員會
 洪永其(委員長) 李海春(書)
 金瓊璵(音樂) 金德成(프로그래밍) 孟哲韓(프로그래밍) 申鉉錫(渉外) 樞泰岳(弘報) 崔京植(渉外専務) 吳榮一(準)

一、研究
 吳允台 楊炯春 尹宗銀 麦仁道 金榮植 金成元(準)
 作業・根本問題对策案 調査立案 標語、趣旨文、啓蒙學習、宣言文、決意文、合意書草案、歴史編纂、基本政策檢討

一、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에베소 3장 20, 21)

四国伝道を開始

許達秀牧師赴任



許連秀牧師

우리 교회에 오라몽은 四國
 伝道를 위해 기도하여 오던
 中 許達秀牧師를 맞이하여 여
 格의 것으로 四國 伝道를 전개하
 게 되었다.

四國에 赴任한 許達秀牧師
 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총
 무실에 하여왔다. 위하여 기
 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四國의 新居浜에 동로 95
 世帯가 살고 있으나 約 40余
 世帯가 살고 있는 한복판에 教

회의	의자를 잡고 있다.	許牧
사	赴任하여 첫주일에	예배
는	7名 둘째주일에는	11名
세째주일에는	7名이	參豫하
였으며	敎會學校는	14名이로
었다	한다.	
許牧師는	日本語에 익숙치	
못하여	애로가 적지 않다 하며	
民団의 事務部長이	열심히	
고 있으나	그는 국어가	익
숙지 못하여	말할수 없는	고
충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許達秀牧師는	地域의 동료	
들을 위하여	한글敎室을	시
작, 成人班	10余名, 어린이班	
에도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있으며	每週(水火木金) 四日	
이나	가르치고 있다	한다.
지금	교외로	빌리고
있는		

집은	二百90坪으로	좋은
치와	넓은	터로
거점으로	매우	좋은
인이	끌려고	대놓고
있어	있어	판
릴때까지	임시로	있게되어
우	不安한	가운데
총회는	무척히	이토지와
은	상것을	요청하고있다.
땅은	坪當 七万坪이나	땅
主人은	敎會에서	사다면
금	더	생각해
는데	총회도	재정성
손을	대지	못하는
끼고	있다.	
許達秀牧師는	師母님과	子
女들의	來日수속의	지연으로
단신부임하여	고혹한	가운데
開拓伝道에	全力을	다
있으나	멀지않아	家族로
		來

年度 慶北老會에서 牧師 按手
.....

第一回宣

서

우리교회와 宣敎紐帶를 갖
고 있는 本國의 敎團(大韓
예수敎長老會(統合·合同)韓
國基督教長老會, 大韓기독교장
리교)과의 宣敎協議가 오는
12月8、9兩日 서울에서 열
리게 된다.

우리총회는 本國의 장로교
감리교가 連合宣敎事業으로 70
年前에 始作, 來年에 宣敎70
周年을 맞이하게 되며 그간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宣敎師

第一回宣教協議会

서울서
開催

를 피견 日本各處에서 큰 상
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중립적으로 在日韓
國人 宣敎에 関한 協議를 가
지지 못하여 왔으나 五敎團
이 在日韓國人에 대한 宣敎
의 諸問題를 생각하게 됨은 뜻
깊은 일이다. 다만 儀禮의 인
協議가 아니라 기탄없는 비
판과 反省위에 서서 宣敎의
展望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KCC의 새 理事를 選出

第15回理事회가 지난11月11日 大阪KCC에서 열려 第4期理事、監事を 다음과 같이 選定하였다。

理事長 俞錫濬、副理事長 金昌業、李小竜、書記理事 尹宗銀、財政理事 金京秋、金仲泰	五個年計面委員 金昌業、李小竜、金德成、俞錫濬、李仁夏	財政委員 金京秋、金仲泰、金漢弼、金元治、文英順	活動事業委員 崔昌華、尹宗銀、金光洙、金性侑、金主日	監事 金載旺、姜南中、權甲述	實務者 主任幹事 맥인도 幹事 李清一、崔忠植
--	--------------------------------	-----------------------------	-------------------------------	-------------------	----------------------------

70周年記念事業委組織

4월으로 宣敎百周年을 向
면서 民族의 念願인 統一
祖國을 내다보며 統一
祈願과 努力이 우리의
독한 使命을 銘心한다。
5월에 하느님 나라가 임
기를 원하는 終末의 希望
宣布하며 世界教會와 一
運動과 紐帶에 積極參與한
이상과 같이 우리의 趣旨
 밝히며 앞으로 宣敎80周
나서 百周年을 지향하
기 過去 그모든 境遇에서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와
리 後孫代代에까지 영원하
게하시을 굳게 믿는 바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것이
옳고 당신만이 우리가 참바
라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려대
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넘지도
욕 없이 하신이에게 교회안
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예배
소3장20, 21)

聖經研究、祈禱獎勵、總力伝道推進、各種伝道集会推進）人材養成（献身者開発、聖經学校、再教育特殊学園設立運営）社会奉事（地域活動、協同組合、養老院、保育園設置）海外宣教本國宣教（以北教会再建、海外宣教師派遣）

一、財政委員會

金京秋（委員長、金光洙（書）
李東和、金漢潁、金昌業、李小龍、崔永模、金主日（準）

作業・宣教70周年記念行事及事業全般予算編成、財政对策會計掌理、募金活動、自立基金確立運営

織 記念品準備

一、宣敎事業委員會

金元治 (委員長) 田永福 (書)
韓在秀 會 黃義生 金信煥
金得三 金君植 申英子 (準)
作業・國內宣敎 (開拓伝道、
伝道所設立、禮拜堂建築援助、訪
問伝道) 教会發展 (教会自立、

洪水其(委員長) 李海春(書)
金瓊燦(音樂) 金德成 프로그
盟 孟哲輝 프로그盟 申鉉錫
(涉外) 權泰岳(弘報) 崔京植
(涉外專務) 吳榮一(準)
作業、各種祝賀行事企画推進
記念歌作詞作曲 記念合唱団組

吳九台 楊炯春 尹宗銀 麦仁
道 金榮植 金成元(準)
作業 根本問題対策案 研究
調查立案 標語、趣旨文、啓蒙
學習、宣言文、決意文、合意書
草案、歷史編纂、基本政策検討
一、祝賀行事委員會

사업위원회

라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우리
가 유대서역사하시는 능력대
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넘치도
록 능히 하실이에게 교회안
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와 우
리 後孫代代에까지 영원히하
게하시을 굳게 믿는 바입니다.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①第5426号

東和食品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李 東 和

東京都江東区永代 2-11-3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 話 052 (682) 1177 (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字太田
電 話 052 (771) 5952

不動産部 千葉県船橋市前原西1-25-18
電話 0474 (76) 6181 ~ 2 番
レストラン部 千葉県八千代市米本1448-1
電話 0474 (88) 5579・1613番

설교 무관심의 죄



金 德 化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 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 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잠언 21:13)

한 부자가 있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호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현대 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발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주린배를 채워야 했다. 어느날 거지는 죽어 천사 주려 고통하는 거지 나사로

들에게 이끌리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여기 부자는 생전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은후에 음부에 떨어져 불꽃가운데서 고통하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무슨 죄를 지었는 말이 없다. 그러나 한 도를 하나씩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했기 때문에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무관심의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고통하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리스도 없이 지

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은 아닐까?

성경은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다(약 4:17)

그러면 관심을 가지는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1.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부자는 한 번도 자기 입장을 과 거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입장이 바뀌었는지 모른다.

반려자가 있을 때 정죄하거나 미워하기 전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의 입장을 충실히 이해 하심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예수는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고통을 받으신 것이

우리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 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배려(配慮)가 있을 때 저들이 얼마나 할기있게 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자신안에 차별의식을 철저히 하고 종의간의 동역자 사이에 차별 관념이 철 폐될 때 비로소 동포의 차별 철폐와 인권 운동도, 몇몇하게 전개 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심을 가지는 생활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발견하거나 나만이 아는 어떤 나쁜 비밀을 알았을 때 말하지 않고 잊어버려주는 것 이 아름다운 관심인 줄 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거나 도와주고 나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잊어버려주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이사야 43:18)에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는 것 이라」고 했다(벧전 4:8)

사람의 잘못을 언제까지나 마음에 새겨두지 말고 잊어버려 주라.

3. 관심을 가지는 생활이 란 주는 것으로 표현된다. 여기로로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모두 무관심하게 지나가버렸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그 비명을 듣고 가까이 가서 「남편」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비용을 지불해 주었다. 그리고 비용이 더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주었다. 고 하였다.

이와같이 관심의 표현은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물질적 주고, 기도해 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라」고 하였다(눅 6:38)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

關東教役者 소품회

韓國 Y M 主催로 奧多摩에서

東京韓國 Y M C A 主催의 關東地域の 教役者家族 野遊會 가 지난 11월 3日, 奧多摩에서 있었다.



關東地域の 教役者家族 소품회

都會地의 혼잡과 스룩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물결이던 풍과 푸르익은 강을 쳐다보면서 가을의 하루를 마음껏 즐겼다.

東京教會의 尹官炳長老의案内는 奧多摩의 大自然과 東京都市의 서쪽 끝을 더 자세히 알수 있었고 장시간 버스에서 지루함을 덜어 주기도 하였다.

關東地域에는 在日大韓基督教會傘下教會外에 東京福音教會(旧三河島教會) 그외에 單立教會가 있으며 教役者는 本國에서 오신분들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野遊會를 통해서 教役者끼리는 물론 家族間의 친목을 도모하며 韓國에서 留學하신 분들과 친교를 가지는 뜻있는 野遊會였다.

맑은 물이 흐르는 산골의 냇가에서 구어먹는 물고기의 맛은 차별하였으며 台灣에서來日한 손님들과도 두터운 친교를 가지게 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복사는 장소와 신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다. 다면 교회는 은혜로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의 남편 고용주는 고용인의 입장을, 고용인은 고용주의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다. 면이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

크리스마스야 연말이 다가온다. 우리는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펴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등한히 하 기쉬운 것이다. 총회본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KCC, RAIK, Y M C A 등 기관에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하여서도

東京韓國 Y M C A 서 卓球大会

東京韓國 Y M C A 主催 第二回卓球大会가 지난 11월 6日(日) Y M C A 講堂で約 50名가參加して開かれた.

東京韓國 Y M C A 의 靑少年体育事業委員長의 金奉任氏의 開會辭につぎ、金成哲君의 選手宣誓によつて大会の幕があけた.

卓球大会に參加者を送つた教會は 國際教會、東京教會、西新井教會、東京福音教會、船橋教會、東京韓國 Y M C A、Y・S クラブ等であつた.



東京韓國 Y M C A 의 卓球大会

- 優勝者は次の通り.
- | | | | |
|-----|-----|---------|------|
| 個人戦 | 少年部 | 優勝 | 李 相喆 |
| | 準優勝 | 井手 誠 | |
| 青年部 | 優勝 | 姜 賢浩 | |
| | 準優勝 | 朴大 兌 | |
| 成人部 | 優勝 | 金 奉任 | |
| | 準優勝 | 金 成哲 | |
| 女子部 | 優勝 | 鈴木恒明 | |
| | 準優勝 | 崔 明子 | |
| 団体戦 | 優勝 | 國際教會 | |
| | 準優勝 | Y M C A | |
| 敢闘賞 | 優勝 | 金 成哲 | |

韓國人国民年金を求める会発足

在日韓國人の手による諸権利獲得の運動が広がりをみせる中、社会保障制度の中でも、重要なかつ緊急に獲得しなければならぬのが国民年金である。在日韓國人は、約半世紀以上にわたつて日本の近代化に多大な貢献をしてきた。ある者は炭坑で鐵道工事、治水工事として軍需工場等であるが、彼らには老後の保障がされていない。

荒川区在住の金鉉鈞氏のケースを端緒として、在日韓國人に「國民年金」という声が在日韓國人のみならず日本人の中にも広まり、去る10月31日、新宿区の日本キリスト教會館四階で「在日韓國・朝鮮人の國民年金を求める会」設立總會が開かれた。

總會には、日本人市民グループ、日本の教會、在日韓國教會

及び在日韓國人約百余名が參加、日本人、在日韓國人の双方の代表からの基調報告とあいさつがあつた。民団も大きな関心をもち、田駿氏(民団人権擁護委員長)も參加してあいさつした。

在日韓國教會は来る11月21日より東山荘で開かれる。在日韓國人の諸権利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も、この問題が論議されるものと思われる。

この「國民年金を求める会」は、特に日本人グループが前面に立つて進められているが、在日韓國人の、より積極的な研究と取り組みが要請されており、シンポジウムに参加する韓國教會の代表たちも大きな関心をもつて臨んでいるとのことである。

ドライ専門 豊川クリーニング店

代表者 崔 永 峻

大阪市大淀区本庄中通 3-36
電話 06(372)5755

三菱電機ストア ヨブヤ電気武庫之莊店

代表者 李 清 孝

尼崎市南武庫ノ莊一丁目 6-13
電話 06-436-8622
(スーパーマイショップ前)
宝塚市川面五丁目 12-10
電話 079-86-0305
(スーパーダイエー前)

関東地方青年・教会学校 関東地方青年会

■はじめに
青年会関東地方連合会、全協
関東分科会、今日における教

会青年の役割と現状に鑑み、6月からは9月にかけて教会学校及び地域子供会に関する一連のプログラムを持った。
特にこの時機にこういうプログラムを持ったのは、丁度夏季学校のシーズンでもあったからだが、在日韓国教会にあって、二世、三世の青年が育たない、教会学校が旧態依然とした聖書に関する受け売りの知識の植えつけでしかないという現状を変革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という意識が働いたからであった。
関東においても青年会は衰退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しかし教会の教会学校を支え、教会の様々な奉仕活動を支えているのはやはり青年である。青年会ではなければならぬ。青年会が変革して青年が担うべき役割の重さは何ら変わらない。私たちは、今回提起された教会学校を中心とする地域の同僚子弟の問題に関わっていくことによって青年を奮起させていき、青年会活動を再開しようとしている。

■船橋教会
二〇数年前より開拓伝道し、今日に至っている。伝道を始めた頃は、まわりに同胞も多かったが、現在はほとんどなくなっている。その為、教員は増えない。現在、教会に毎週出席する人は十五人位で、全教員が四〇人位であるのを見れば、出席率は低いと言え、教員は、千葉やゴイの方から車で一時間以上かけて教会に来る。
《教会学校の状況》
生徒は一〇人位で、そのうち二人が日本人である。一〇人といつても四家族で、それも全部教会から遠い所に住んでいる。

■東京教会
《東京周辺地域の状況》
大学・病院・ビル等の多い通りから少し奥まった住宅街に位置している。地域的に同胞が住んでいない場所であり、教会周辺にも全くといっていい程いない。
《教会と青年会の現状》
現在中断されているが、今後再開しようとしている。

■聖書研究
数年前、青年会としてまとまっていたが、昨年四月から聖書研究・国イギス早の活動を通して再組織化された。
毎月一回、レポートは各自持ち回りで、毎回十名前後の参加者である。
集まる子供達の層が限られるので、今後新しい、有りがたう模索されねばならない。

■青年会の現状
青年会はない。教会の子供に青年は三人程いるが、教会にはあまり出席しない。教会で活動していない。今後、関東連などの青年との横のつながりが必要とされているようである。
《青年会の状況》
青年会はない。教会の子供に青年は三人程いるが、教会にはあまり出席しない。教会で活動していない。今後、関東連などの青年との横のつながりが必要とされているようである。

■青年会における現在中心課題
現在、青年会では大きな関心を抱いているのは、教会学校の事である。三名の青年が教会学校の教師をしているが、今後は、青年会として、教会学校・子供会に力を入れ、青年会における意識の共有化を期し、意識、行動共に高めて行く事が中心課題である。
《七月二十四日子供会報告》
午前十一時から午後二時半まで、教会で初めて子供会がもたれた。二〇名の参加で、内一名が日本人。ゲームやスライド、紙芝居等、遊び中心の会であったが、今後、二ヶ月に一度位のペースで継続していく方針である。同胞がいらない地域なので、近くをまわって子供を集めることが困難である。

在日韓国人の参政権獲得闘争 (4)

崔 昌 華

(4) 参政権獲得闘争

参政権獲得闘争が北九州市長・福岡県知事への「公開質問書」という形式で、しかも9月1日提出という形で始まった。

一九七五年九月一日北九州市長、一九七六年九月一日、福岡県知事へ提出した。

市と県への最初の質問は「今日はどういう日ですか」という問いから始まった。この問いかけは日本人総体に対する問いかけである。市側も県側も、この問いかけに殆んど「知らない」「防災の日かな」という答えが返ってきた。

一九七三年、関東大震災の時、朝鮮人という理由で約六千人が殺されたのである。今でも「朝鮮人という理由」で巧妙な法律で差別し、差別することによって朝鮮人を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ある。

このことをはっきりと認め、うことから、始まらなければならぬ。

一九七五年八月二十五日、今まで数回話し合いをふまえ、各団代表十六名が小倉教会に集まり、最終的に討議決定した。参

政権を含む五項目要求の公開質問書に各団体代表が署名、9月1日、朝鮮人を虐殺した関東大震災記念日に提出することを決めた。

8月27日、朝日、毎日、読売、西日本の各新聞、テレビ、ラジオにおいて広く報道された。

8月28日、韓国の韓国日報は「在日同胞参政権運動」と大きな初号活字をあてた。

9月1日、小倉教会、折尾教会を中心とした信徒及び一般韓国人・朝鮮人・日本キリスト教の牧師・信徒・大学生・労働者等約80人が市庁につめかけた。

10月4日、前回はつめくまわ百人近い在日朝鮮人・韓国人・日本人が集まった。

日本人の責任として、公開質問書の五項目を支援する要請書が提出された。北九州市長と

教団市産業道代表、尾瀬、力、北九州市長と教団市産業道代表、尾瀬、力、北九州市長と

8月24日、各団代表が小倉教会に集まり、県知事への公開質問書提出について最終的に決定した。

崔昌華(チオエ・チャンホア)牧師、金智植牧師、金得三牧師三人は県秘書課を訪問、9月1日、公開質問書提出について話し合い、知事の出席を求めた。

8月26日、毎日、西日本の朝刊、8月28日、朝日朝刊には、「在日韓国・朝鮮人の参政権要求、福岡県(質問状、日本国籍復活の突破口」と大きな初号活字をあて詳細に報道した。

9月1日、読売、フクニチの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朝刊でとりあげられた。在日韓国教会牧師、信徒、日本の教会の牧師、信徒、大学生等約40人が出席した。県側は12人出席した。

海外派遣交換生募集

ICYEプログラムは、主として世界のキリスト教会の支援により、各国の家庭を提供しあい、青少年を1年間交換し、体験学習の機会を提供する非営利の事業です。ただし、正規の大学留学を目指す方には適しません。

- 派遣国 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アメリカ・ドイツ・スイス・デンマーク・フィンランド
- 参加費 40万~86万円。これにより派遣生の1年間の生活費と往復渡航費を保障します。
- 派遣期間 1978年8月~1979年7月。
- 募集人員 2名
- 申込締切 1977年12月10日
- 資格 16~23才の青年男女。宗教・国籍・学歴不問。外国人青年を家庭に引受けすることができる者(不可能な方はYMCAが相談に応じます)
- 応募書類 200円切手同封のうえ、下記に請求のこと。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電話 03-291-1511

在日本韓国YMCA

総務 李 旭 権 ICYE担当 姜 榮 一

高級婦人服製造卸

OK 商 会

金 京 秋

本町店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番地
船場センタービル8号館2F281号
電話 大阪(06)251-5444番
自 宅大阪 市東区東小橋3-4-12
電話 大阪(06)981-2980番
974-7715番

食品・薬品包装業

有限会社 加富利産業

代 表 者 金 漢 弼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25-12
電 話 03(890)0951番(代)